
 <b>인천광역시</b>	<b>보 도 자 료</b>		
	배포일자	2022년 8월 8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    가족다문화과	담 당 자	• 다문화가족팀장    김지연 ☎440-2901 •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이영주 ☎440-2902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결혼이주여성 검정고시 합격자에 노트북 지원

- 2022년도 1회 검정고시 합격자 42명에게 노트북 지원 -
- 결혼이주여성 학업능력 키우고, 자녀양육 이해도 높이기 위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(계양구가족센터)와 함께 2022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결혼이주여성 42명에게 노트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.

인천시는 2014년도부터 결혼이민자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, 지난해 포스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공모사업에 인천시 다문화거점센터(계양구가족센터)의 ‘결혼이민자 학력신장 프로젝트-위풍당당 엄마되기’ 사업이 선정됐다.

이 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학업능력 향상을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양육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, 올해 시는 공모사업비로 ‘검정고시 사업’을 추진하기로 했다.

지난 4월에 치러진 2022학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응시한 50명 중 합격

자 42명 전원에게 노트북을 전달했으며, 오는 8월에 치러지는 제2회 검정고시의 합격자에게도 노트북을 지원할 예정이다.

이 사업은 결혼이민자의 학업능력 향상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자녀양육 이해도 증진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, 실제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결혼이주여성은 “검정고시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, 아이들의 공부를 봐 줄 수 있어서 좋았다” 고 소감을 밝혔다.

박명숙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앞으로도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신장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예정” 이라며 “고졸과정 합격자들의 대학진학은 물론 취업지원을 통해 역량을 계속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” 이라고 말했다.

